

개항기 신문매체를 통해 본 19세기 말의 ‘의리(義理)’ 개념*

문경득**

〈 목 차 〉

1. 서론
2. 유교적 의리 개념의 확장과 변용
3. 개항기 의리 개념의 탈유교화
4. 결론

1. 서론

‘의리(義理)’ 개념은 옳을 의(義)와 다스릴 리(理)라는 두 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성리학자들은 스스로의 학문을 ‘의리지학(義理之學)’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김낙진 2004: 25). 사전에서는 의리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남남끼리 혈족관계를 맺는 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¹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 의리라는 단어는 부정적이거나 회화화되어 통용되고 있다. 의리가 조폭끼리 쓰는 말이 되어 이를 친구 사이의 우정으로 미화한 영화가 유행하기도 했고,² ‘으리!’를 외치는 연예인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³ 실제로는 “‘인간관계’로 맺어진 면접집단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사적인 의무”(이승환 1998: 120)로서 작동하다 보니 연구주의에 기반해 이익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 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연구교수, kd2003@jj.ac.kr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영화 『친구』(2001)가 대표적이다.

3 영화배우 겸 방송인 김보성(본명 허석)은 평소 의리를 외쳐왔고, 여성 코미디언 이국주는 《코미디빅리그》(tvN)에서 김보성을 패러디한 캐릭터 ‘보성맥’을 연기했다.

추구하는 집단이나 조폭과 같은 범죄집단에서 구성원을 복종시키는 규범으로써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심지어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不義)’가 아니라 ‘의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다(윤철호 1995: 40). 이처럼 전통시대의 의리 개념과 사전적 정의, 실제 현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리의 뜻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의리 개념 사이의 간극은 근대 이행의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유교문화가 많은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의리’ 개념이 변화한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이식된 일본식의 ‘기리(義理)’라고 보는 시각이다(이승환 1998: 121). 구한말에 소개된 일본소설의 영향을 받아 현대의 의리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황소연 2009: 254-255). 두 번째는 성리학적 의리(즉, 올바름의 이치로서의 의리) 개념이 근대 들어 유입되기 시작한 서양문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난 ‘의미변동(meaning change)’를 거쳐 새롭게 정착한 단어라고 추측한다(이승환 1998: 122). 하지만 막상 조선시대의 의리 개념이 현대에 오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의리 개념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개념사란 과거의 행위자가 경험한 ‘현재’를 표현하고 있는 사료의 언어(과거의 현재)와 우리가 경험한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현재의 과거) 사이의 차이점을 밝혀, 과거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려는 연구방법론이다(나인호 2011: 27-31).

본 연구에서는 ‘사회사적 의미론’에 입각하여 개념과 사회적 콘텍스트의 관계를 분석하는 롤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의 개념사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론은 먼저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상용어의 연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개념의 사회적 대표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개념의 구체적 수용과정과 그것의 사회적 반향과 차용의 과정을 꼼꼼히 추적하기 위해 어떤 개념이 특정 텍스트 속에 갖는 ‘의미장’을 구조화하여 해당 개념과 관련된 모든 단어의 사용 범례를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때 ‘계열관계’의 장에는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배치되며, ‘통합관계’의 장에는 개념들을 내용적으로 채우고 설명하고 특징짓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기능적 반의어’에는 모든 체계적 반대개념이, 역사적 사실에는 역사적 사건, 인물, 원인 등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이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한 개념의 의미장을 시간의 흐름에 구성해보면 개념의 변화를 가시화할 수 있다(나인호 2011: 82-92).⁴

본 연구는 의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9세기 말의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 《한성주보(漢城週報)》, 《독립신문》에 주목하였다. 먼저 《한성주보》와 《한성순보》는 비록 한문을

4 이외에 김학이 2009: 128-175에서도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외국 자료와 신문을 번역한 자료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정진석 2003). 그러므로 개항 이후 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신문》의 경우, 순한글로 발행한 민영신문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이들을 독자로 삼았으며, 이들은 투고자로서 참여하기도 했다(채백 2006: 154-164). 그러므로 《독립신문》의 기사를 구성하는 언어는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는 ‘일상언어’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1894년 갑오개혁으로 본격적인 근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1898년의 독립협회 활동 등과 맞물려 다양한 논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간행된 신문이므로 19세기 말의 변화를 잘 드러내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항기 신문 매체도 공백이 있어 유교적 의리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못했고, 대신 개념의 의미장이 변화한 양상 중 두드러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⁵ 먼저 2장에서는 간략하게 유교의 의리론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의 의리 개념이 정치·사회·상대화되고 개항기라는 상황에 맞추어 확장·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유교적 의리 개념이 탈유교화되어 개항이나 기독교의 믿음 등을 정당화하는 언표로 사용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유교적 의리 개념의 확장과 변용

의리 개념은 유교가 지배이념이 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유교의 발전과 성리학의 발생 등을 거치면서 더욱 복잡한 개념이 되었다. 이 개념이 조선에 수용되면서 다시 변화하였으므로 의리 개념의 출현과 조선시대까지 의리 개념의 변화 또한 개념사의 연구대상일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개항기의 의리 개념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2장에서는 유교의 의리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⁶ 의리 개념이 상대화되거나 적용되는 관계를 확장시킨 사례를 제시하였다.

5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연구는 언어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념의 분석에 앞서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 이미 방대한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추출된 개념과 관련된 모든 단어 및 용례들의 등장 빈도수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는 물론 근현대까지 통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대상 역시 신문 이외에 보다 폭넓은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연구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연구대상의 확장은 후속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6 유교의 의리 관념과 조선시대 의리론은 김낙진의 연구를 주로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유교의 의리론과 그 전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낙진 2004: 75-109, 183-223를 참조.

2.1. 의리 개념의 변용

2.1.1. 유교적 의리론

‘의리’라는 단어 자체는 춘추전국시대부터 확인된다. 진나라 이전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마땅한 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가 한나라와 진나라 시대에는 경전의 뜻과 개념의 이치[經義名理]를 가리켰다. 송나라 이후에는 성리학을 ‘의리지학’이라고 칭했고, 청나라 이후에는 학문을 의리, 고거(考據), 사장(辭章)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보편적으로 마땅한 도리’와 ‘경전의 의미와 개념의 이치’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 두 가지 뜻은 사실 하나로 원래는 경전을 공부하며 그 뜻과 이치를 탐구하여 사람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도리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김낙진 2004: 24-30).

의리 개념의 기본적인 뜻을 넘어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진다. 본래 의리라는 관념 자체는 유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유교의 관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백(智伯)의 복수를 기약한 예양(豫讓)이나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형가(荊軻)의 사례처럼 이미 개인들 간의 사사로운 의리가 존재했다(김낙진 2004: 39-54). 이때의 관계는 일정한 선택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시작되며 전인격적인 헌신과 예우를 통해 맺어졌다. 따라서 개인간의 의리는 “타인과의 인격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최선의 헌신을 다할 때 이를 의롭다고 여기는 습속”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낙진 2004: 39-45).⁷

이러한 의리 관념은 정과 의리의 결합이라는 양식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정은 타인의 알아줌이나 예우에 대해 이를 은혜로 느끼고 갚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면, 의리는 관계자들의 ‘명분’에 따른 지위의 나눔과 그에 달라붙는 규율의 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과 의리가 결합되어 의리의 윤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방식이자 규범이 성립하였다(김낙진 2004: 272).

유교의 의리는 개인 간의 의리와 의리 의식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다만 유교는 천하 국가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으므로 사적인 은원에 따른 복종과 복수를 조장하는 협객의 의리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은혜와 헌신을 바탕으로 하되 우연적인 관계보다는 필연적인 관계 즉, 부모-자식, 군주-신하, 남편-아내와 같은 관계를 중시했다. 나아가 유학은 사회 성원 모두가 협동하는 존재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모든 관계에서 의리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7 조선시대에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도적이나 자체적인 규율을 가진 성균관의 반민(泮民) 등을 통해 이러한 의리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강명관 2003: 51, 72-76, 249, 252-253). 이들의 의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덕목과 내부 성원들을 단속하는 규율이 있었으며, 유교의 언표를 빌리되 자신의 업종과 경험, 집단의 성격에 따라 인의예지 등의 덕목을 자유롭게 변형시켜 사용했다. 둘째, 이 집단들의 의리는 주로 외부집단에 대한 반항 혹은 대결의식에서 생겨난 것으로 내부 성원을 보호하고 단결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김낙진 2004: 194-195).

보았다. 다만 관계에 따라 은혜를 주고받는 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이후 각 성원들에게 유교가 인정하는 지위의 ‘이름(名)’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지위와 직분을 부여하여 보답, 헌신, 책임의 행위를 차등적으로 분배하였다. 이처럼 혈연적인 친소와 개인의 어질고 불초함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차등적 지위에 따라 부여된 책임이 바로 유교의 분의(分義)이다(김낙진 2004: 46-54).

다만 이러한 분의는 가족적 정서와 분리되지 않는다. 즉, 분의에는 의무나 합리적 분배가 아닌 감성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감정의 교류는 합리적 분배인 분의를 감성적인 헌신으로 이끌어갈 조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유교의 의리는 분의의 엄격함과 정서의 화목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헌신적으로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의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김낙진 2004: 55-64). 이러한 유교의 의리가 보편화되면서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동아시아인들의 관념이 일반화되었으며 위계적 사회질서가 당연시되었다.

이후 유교의 전개 과정에 따라 의리 개념은 더욱 확장되고 복잡해졌다. 춘추대의는 의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운영과 국가간의 관계까지도 명분(名分)에 따라 평가했다. 또한 하늘(天)과 같은 자연까지도 관계맺음의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의리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다. 성리학은 인성론과 이기론이라는 형이상학에 입각하여 의리의 실천은 사회적·문화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본성에 의한 행위이자 유일하게 가치 있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로서 외면적으로 확대되고 내면적으로 심화되었다(김낙진 2004: 273-274).

2.1.2. 유교적 의리의 정치화

한나라 이후 유교가 국가의 지배이념을 자리 잡으면서 《춘추》의 미언(微言)에서 대의를 찾고자 하면서 춘추대의가 유교 의리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춘추의 대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명분을 바로잡음(正名分)이다. 이를 통해 시비를 밝힘(明是非), 포폄을 가함(寓褒貶), 존왕양이(尊王攘夷)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춘추의 의리 자체는 유교의 일반적인 의리와 같다. 그런데도 유교의 의리에서 춘추대의가 중요한 이유는 《춘추》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일을 빌려서 유교의 명분론에 입각한 의리를 표현하여, 의리의 판단과 실천에 표본이 되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춘추대의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복수의 정신’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명(正名)에서 벗어나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다면, 이러한 악을 적극적으로 응징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유교의 분의와 보편적인 도리를 지키고 실천하고자 했다. 이후 성리학자들은 요와 금과의 전쟁 등으로 복송이 망하는 경험을 했으므로 이로 인해 춘추대의를 더욱 강조했고, 조선의 성리학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다(김낙진 2004: 75-81).

하지만 의리라는 관념에 내포된 ‘옳음’의 문제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문제였다. 그

랑기에 서로 상충하는 의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러말선초의 절의와 개국,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둘러싼 청의와 화의, 봉당과 당쟁, 위정척사와 개화론 등의 대립도 결국 의리론 내에서 서로 다른 의리를 두고 일어난 갈등이었다. 특히 예송과 당쟁, 한국과 탕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격화된 갈등으로 인해 명분과 의리는 자기 이익을 위한 변명으로, 진실한 삶의 원리로 숭상되어야 할 도덕이 자기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해갔다(김낙진 2004: 222-223).

실제로 조선후기에 정치적 사건을 둘러싸고 충역과 시비의 해석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자 왕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려면서 ‘의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임의리(辛壬義理)’와 ‘임오의리(壬午義理)’이다.

경종 대인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에 경종의 이복동생 연잉군(延昞君=영조)의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여 두 차례의 옥사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종에게 충성한 소론은 영조에게는 역적이 되고, 영조에게 충성한 노론은 반대로 경종을 폄박하고 시해하려한 죄인이었다. 이후 영조가 즉위한 뒤에 갈등이 격화되어 1728년에는 반란까지 일어나자 1729(영조 5)에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의리를 절충하여 ‘신임의리’를 내세웠다.⁸

임오의리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1762년(영조 38)의 ‘임오화변’과 관련하여 사도세자를 죽게 한 것이 종사를 위한 결단한 것임을 천명하는 의리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리보다 왕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조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평생에 걸쳐 이러한 할아버지인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고자 했다(최성환 2009: 42-64, 202-277).

이처럼 왕이 충역과 시비를 가리고 이를 ‘의리’라고 천명하였으므로 난신적자(亂臣賊子)를 가리는 ‘춘추대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임의리나 임오의리 모두 도덕이나 윤리의 측면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왕이 갈등을 봉합하고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춘추의리에 빗대어 ‘의리’라고 명명했지만 유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치의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왕실의 정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 거론되었다. 특히 죄인의 사면(赦免)과 관련된 기사에서 의리 개념이 등장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이다.

1899년(고종 36) 10월 2일(양력)에 사도세자를 추숭(追崇)과 관련하여 올라온 상소에 나오는 “정묘의 정밀한 의리[正廟精密之義]”, “선왕의 의리[先王之義理]”와 같은 표현은 직접적으로 정조의 임오의리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정치의리’에 해당한다.⁹ 또한 1864년(고종 1)에 대왕대비가

8 단, 영조 5년의 기유처분에서 정한 신임의리는 절충안이이었으므로 노론과 소론 모두에게 불만이었다. 이후 영조가 사망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논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최성환 2009: 16-42 참조.

중친의 계보에 있는 자들을 신원하고자 하자 대신과 유생들이 극렬히 반대했는데, 이에 대한 비답과 전교에서 등장하는 의리라는 표현도 정치의리라고 볼 수 있다.¹⁰ 이 중 1864년 7월 25일의 기사를 보면, “천지간에 우뚝 세워 백세도록 물려가면서 열성조가 서로 전수한 의리[建天地俟百世列聖相傳之義理]”라는 표현과 “의리가 우리 왕가에서 대대로 지켜온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明義理之爲我家世守物]”라고 하면서 선왕이 정한 의리를 왕실에서 지켜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 정치의리와 관련된 사건에 얽힌 인물의 위패를 옮기지 말자는 부조(不祧)나 그들의 후손이 어려우니 서용(敍用)하자는 논의에서 등장하는 의리의 표현도 정치의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¹¹

이처럼 선왕의 정통성과 직접 관련된 사안 이외에도 왕실의 결정을 두고 ‘의리’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다. 즉, 만동묘와 서원의 복설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상소에서 그러한 사례이다. 1873년(고종 10)에 만동묘와 서원의 복설을 청하는 최익현의 상소가 있었다.¹² 이에 대해 영돈녕부사 홍순목 등이 최익현의 처벌을 요구하고 이에 고종이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1873년 11월 9일 기사에 “대신이 의리를 운운하지만 나는 자성의 명을 받는 것을 도리로 삼고 있다[大臣雖云義理, 而予則惟以奉承慈聖爲道理]”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보면 의리와 도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때 대신이 말하는 의리는 정치의리에 가깝다. 즉, 1865년(고종 2)에 대왕대비의 지시에 따라 만동묘를 철폐했는데, 최익현이 만동묘 복설을 주장하면서 “윤리가 무너졌다[彝倫斁喪]”라고 기존의 철폐 결정을 비판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기존의 결정, 즉 의리를 공격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고종이 말하는 도리는 대왕대비에 대한 효도이므로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분의에 해당하는 의리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의리의 깊고 얕음을 논쟁하는 것[義理之淺深而爭之]”라고 표현했다.¹³

2.1.3. 유교적 의리의 상대화

정치적인 성격의 의리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19세기에도 여전히 의리는 중요한 가치였다. 그러므로 1880년대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의 의리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관학유생 심노정 등이 권상하(權尙夏) 등을 문묘에 종사하자고 올린 상소에서 권상하의 학문

9 《고종실록》 36년(1899) 10월 2일(양력)

10 《고종실록》 1년(1864) 5월 18일; 6월 15일; 7월 10일, 11일, 18일, 25일

11 《고종실록》 17년(1880) 9월 8일; 23년(1886) 9월 22일; 27년(1890) 12월 21일. 각각 김우항, 민진원, 민우수에 관한 기사이다.

12 《고종실록》 고종 10년(1873) 11월 4일

13 《고종실록》 고종 10년(1873) 11월 9일

의 순수함을 찬양하면서 ‘의리의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다.¹⁴ 이 의리 개념은 유교적 의리 혹은 성리학 자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성주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의리 개념이 3건의 기사에서 등장하는데 이중 2건은 《고종실록》에도 같은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서양 종교를 반대하며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는 사교(邪敎), 사설(邪說) 등이 기능적 반의어로 등장하고 있고, 계열관계에서는 “천리를 밝힌다[明天理]”, “인심을 바르게 한다[正人心]”와 같은 표현이 보인다.¹⁵ 임금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강조하며 영의정 심순택이 아뢴 내용에서 나오는 “의리의 귀결을 강구하여 밝힌다[講明義理之歸]”라는 표현은 경전의 뜻과 이치를 살펴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본래의 의리 개념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⁶ 이 역시 계열관계에 등장하는 “현인을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한다[親賢遠小]”와 기능적 반의어에 등장하는 “사심(私邪)”과 같은 표현들도 모두 유교적 의리 개념의 의미장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정책[學政]에 관해 조선에는 “성명과 의리의 학문[性命義理之學]”은 충분하나 실용학문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서양학문을 한글로 번역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에서 등장하는 ‘의리’는 성리학을 지칭하고 있다. 한글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의리를 밝게 이해할 수 있다[曉解義理]”라는 표현에서 의리 개념은 ‘뜻과 이치’라는 자의(字義) 그대로의 표현이다.¹⁷

그런데 이 기사는 앞의 두 기사와 다르게 성리학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학문이 아니라 서양학문과 대등하게 배열되고 있어 성리학과 유교적 의리 개념이 상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신문》에서도 이처럼 유교적 의리의 의미장 내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 유교적 의리 자체를 다른 가치체계와 비교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완고와 개화를 대립시켜서 개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설에서 ‘문명 진보하여 새 법과 새 풍속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 공맹께 실례가 되고 몇천 년 된 선왕의 법률과 제도를 변하여 오랑캐의 법률과 제대를 본받는 것이 의리상에 틀린 것’이라는 내용과¹⁸ ‘외국의 풍속과 제도를 배우고 본받는 것이 공맹지도와 선왕지법에 대단히 어긋나며 의리에 틀린 일’이라는 내용이 나온다.¹⁹ 이때의 의리 개념은 도의나 유교적 분의보다는 성리학 자체를 가리키는 뜻에 가깝다. 이처럼 개항 이후에는 성리학과 그 가르침은 상대적인 지위로 격하되어가고 있었다.

다만 이 두 논설 모두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 의리가 틀리는 것을 보고 있냐’

14 “學純乎義理之正道.” 《한성주보》 1883년 11월 10일.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 중에도 같은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나 훨씬 소략하다.

15 《한성주보》 1886년 8월 16일. 〈儒臣疏批旨恭錄〉; 《고종실록》 23년(1886) 6월 10일.

16 《한성주보》 1887년 6월 27일. 〈元揆次對〉; 《고종실록》 24년(1887) 5월 3일.

17 《한성주보》 1886년 2월 15일. 〈論學政第三〉

18 《독립신문》 1896년 8월 29일. 〈만일 갑당이 십각건디 외국을 교섭 하느디 조선에 유조치 안코 문명〉

19 《독립신문》 1899년 5월 3일. 〈의리에 틀린 일〉

고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은 ‘완고도 아니고 개화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거나, ‘입으로만 의리에 틀리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완고도 아니고 개화도 아니고 의리에 틀린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때의 의리는 자신이 믿는 바에 목숨을 바치는 ‘절의(節義)’와 유사하다. 다만 믿음의 대상이 유교적 의리만으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의리 자체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함이 달라지는 성격이 있지만, 이처럼 정치적 문제에서 결정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언제나 권력에 따라 바뀔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개항 이후 점차 유교가 지배체제에서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은 유교의 의리도 다른 가치체계와 대등한 비교대상으로 상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2. 의리 개념의 확장

유교에서 의리 개념은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자연물이나 이념,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 개항 이후 나타난 새로운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에 대한 의리, 즉, 애국의 문제와 조약체계에 기반한 근대적 국제관계이다.

2.2.1. 충군애국과 의리

조선인들이 국가에 대한 의리를 말할 때 그 대상은 근대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왕을 대표하는 왕가를 가리키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국가를 접하면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생기면서 국가에 대한 의리는 임근에 대한 충의에서 분리되었다(김낙진 2009: 250-251). 《독립신문》에서 나오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이란 표현이 이러한 분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898년부터 독립협회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나 논설에 소개되고 있으며, 의리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충애하는 의리’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시기상으로는 1897년 광무개혁과 황제국으로 격상을 찬양하는 논설에서 ‘애국 애민하는 의리’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다.²⁰ ‘조선의 신민들은 구습과 잡심을 다들 버리고 문명진보하는 애국 애민하는 의리를 밝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내용에서 의리가 거론된다. 이 개념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문명진보’이며 기능적 반의어로 구습과 잡심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이 ‘애국애민하는 의리’에서는 유교적 연표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민(臣民)으로서 나라와 다른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리의 주장 자체는 ‘분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의 의리는

20 《독립신문》 1897년 10월 14일. <광무 원년 십월 십이일은 조선 스귀에 몇 만년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나라’와 ‘백성’이 나온다는 점은 개항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충군애국’이라는 표현은 독립협회의 ‘정치기획’으로 정치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해 1898년부터 내세운 표어이다. 독립협회는 토론회나 민회 같은 사적 정치영역에서 형성된 공론을 조정과 같은 공적 정치영역까지 끌고 가고자 ‘애국’이라는 당위적 개념을 사용했다. 즉, ‘충군애국’에서 중점은 ‘충군’이 아니라 ‘애국’으로, 독립협회는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하였고 군주는 이를 위한 매개체였다(곽금선 2018: 383-384). ‘충애하는 의리’라는 표현도 이러한 ‘충군애국’이라는 정치기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충군’은 신민의 당연한 의무인 ‘분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애국’은 다른 문제였다. 독립협회는 문명개화를 위한 개인의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수사로써 ‘애민’, ‘애국’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들의 ‘애국’은 어디까지나 ‘국왕’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곽금선 2018: 107). 나아가 ‘국민’과 ‘국가’라는 근대적 주체 혹은 집합체가 설정되었고 군주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립신문》에 나오는 ‘충애하는 의리’라는 표현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 유교적 분의를 국가에 대한 의리까지 변용·확장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이 망한 이후 식민지 시기부터는 충성의 대상이 군왕에서 국가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김낙진 2009: 251-257), 아직까지 충군과 애국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왕과 국가의 분화가 완료되지 않은 과도기적, 혹은 개항기적 의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2.2. 근대적 국제관계와 의리

앞서 《춘추》를 통해 형성된 춘추대의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는데, 이러한 춘추대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의리가 적용되는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까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중국 내의 국내 질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국제질서를 정립하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조선에서도 임진왜란이나 정묘·병자호란을 둘러싸고 전쟁을 계속할지 화해할지를 두고 춘추대의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김낙진 2004: 202-208). 17~19세기의 대외인식도 이러한 논쟁의 영향을 받아 명청교체라는 국제질서의 변동을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대처하였다. 특히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순한 사대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같은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김낙진 2004: 208-212). 이처럼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대외관계도 의리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개항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척화와 개화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춘추대의는 위정척사파의 척화와 동도서기론자들의 시무개혁을 위한 근거로 각각 제시되었다(김낙진 2004: 213-214).

실제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여 ‘신의’의 뜻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의리 개념은 《한성순보》와 《독립신문》에 모두 보인다. 《한성순보》에서 신보의 기사를 인용해 중국과 일본이 동맹하여 아시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 기사에서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에는 충신(忠信)과 친애(親愛)가 있어야 하며, 친애가 없으면 의리도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²¹ 이는 정과 의리로 구성되는 의리 개념이 그대로 나라의 관계에 적용된 사례이다.

《독립신문》에서도 국제관계의 냉혹함을 말하기는 하지만, ‘광명정대한 마음으로 각국과 약조하는 자리에 임해 정대한 의리를 말하면 결국 나의 바른 것에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역시 근대 국제관계도 힘이 아닌 의리에 기반하여 운용될 것이라는 ‘상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근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근거로 《만국공법(萬國公法)》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국공법》은 장로교 선교사인 마틴(W. A. P. Martin)이 한역한 것으로 1864년에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간되었다.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로 ‘만국공법’이 채택한 것도 바로 마틴으로 ‘여러 나라 사이’라는 의미를 담아 ‘만국’이라고 번역어를 선정한 뒤, 자연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공법’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강상규 2013 :260-276) 즉, 마틴의 한역본은 기독교 문명과 유교문명의 차이를 고려하여 당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유교문명권에 친화적인 자연법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만국공법이 이해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도리(道理)’와 같은 보편원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만국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질서이자 원리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였다(강상규 2013: 289-290).

따라서 조선에서는 전통적인 춘추대의가 적용된 조공책봉체제의 기반에 《만국공법》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강조된 자연법적인 성향으로 인해 근대의 국제관계에서도 의리가 통용되리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확장과 상상은 개항기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인다. 이미 일본에서는 1870년대에 오면 이러한 관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즉, 1873년에는 공법 대신 ‘국제법’이라는 번역어가 나타나고, 후키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통속국권론』(1878)에서 근대 국제질서는 힘에 기반을 둔 질서라는 관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강상규 2013: 303-305).

3. 개항기 의리 개념의 탈유교화

개항 이후에도 여전히 유교적인 의리 개념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장을 들여다보면, 유교적 언표인 ‘의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유교적 의리와 다른 지향점을 보이는 사례가 존재한다.

21 《한성순보》 1884년 7월 3일. 〈隣交論〉

3.1. 개화를 위한 당위와 도의

유교적 의리론에서 지위의 이름은 태어나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리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상대가 은혜를 베풀지 않더라도 자기의 직분만큼은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자세를 요구한다. 즉, 관계에 따라 주어진 ‘명분(名分)’에 맞게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유교의 의리라고 할 수 있다(김낙진 2004: 55). 즉, 논리적으로 의리의 준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당위’이자 도리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개항기에는 개화를 강조하면서도 의리 개념을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독립신문》은 국민계몽을 위해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고 근대적 시민 사상을 널리 소개하여 개화와 진보의 움직임을 활성화하였다. 즉, 여론의 힘으로 국가의 제도적 근간을 개혁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구체적인 개화가 될 수 있도록 지면을 통해 지적했다. 이를 통해 생활 주변의 구체적인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채백 2006: 326-327).

《독립신문》에서 개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논설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연표로서 의리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첩을 두는 풍습에 대해 비판하는 논설에서 ‘가난하고 곤궁할 때 아내 덕에 먹고 살다가 조금이라도 나아져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같이 고생하던 아내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인정에도 마땅하고 의리상에도 옳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²² 이 의리를 둘러싼 의미장에서는 유교적 의리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계열관계에 인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기사의 의리 개념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의(道義)’의 뜻에 가깝다.

여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논설이나 토론회에서 부녀를 교육하자는 논의를 소개한 기사에서도 마땅한 도의로서 의리 개념이 등장한다. 즉, 여학교를 세워 여성을 교육하자고 하면서 ‘천히 여기고 박대하던 여인들을 사나이들이 자청하여 동등권을 주는 것이니 어찌 의리에 마땅하지 않으며 장부에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겠냐’고 주장하거나²³ ‘부녀를 교육하는 게 의리상과 경제상에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토론했다는 기사가 있다.²⁴ 이 기사들에 등장하는 ‘국가경제학’이나 ‘경제상’이라는 연표를 보면 그 지향점은 점은 ‘부국’이며, ‘동등권’도 근대적인 권리에 관한 연표이다. 사나이, 장부 등의 표현의 경우, 유교의 분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표현으로 오히려 사사로운 개인의 의리에 가깝다.

뜻있는 부인들이 여성교육에 대한 상소를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평정직한 의리를 잡아 글을 올려 임금을 보좌하고 나라 법강을 부지하게

22 《독립신문》 1896년 6월 16일. <조선 사나회들이 첩 엿는거시 그르다고 이왕 신문에도 여러번 말 하였거니와>

23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조선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 인구 수효와 비교 하여 보면>

24 《독립신문》 1897년 9월 23일, 10월 2일. <요전 일요일 오후 세시에 독립관에서>

하려고 한다’면서 의리에 빗대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²⁵ 이때 의리의 수식어인 ‘공평’과 ‘정직’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의나 춘추대의 등 유교적 의리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도의나 정의처럼 보다 보편적인 도리 개념에 가깝다고 보인다.

3.2. 믿음과 신념을 위한 절의

조선의 의리는 절의(節義)라는 극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사소한 일부부터 가족, 향촌사회와 학문집단, 국가에서 주어진 자기 역할을 실천하면서, 때로는 영예와 이익을 버려야 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의리를 실천해야 했다. 그러나 자기 본질의 확인과 실현이 의리에 있었으므로 의리를 회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이처럼 의리가 절의를 통해 시작되고 성숙되었다는 점은 조선 의리론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의리를 죽음을 무릅쓰고 실천하여 절의를 지킨 인물들이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그만큼 강렬하게 의리를 지향하도록 했다(김낙진 2004: 220-221). 그렇기에 의리라는 개념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표로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분석한 ‘충애하는 의리’ 또한 절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등장하기도 한다. 즉, 독립협회 등이 주관한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와 관련하여 의리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중 이승만이 연설하다가 보부상들에게 공격당한 광경을 묘사한 기사에서 이승만이 보부상의 습격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죽더라도 충애하는 의리는 가지고 죽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승만의 아버지는 이승만이 ‘당당한 충애의 의리로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사랑하여 다니는 것을 어찌 금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²⁶ 여기서 신민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독립협회가 제창한 ‘충군애국’을 위해 죽음과 손해를 불사하고 실천에 나서는 양상은 의리 개념에 내포된 ‘절의’의 관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군애국하는 의리의 대상이 충군보다는 애국을 지향한 것을 넘어, 의리가 아예 유교를 지향하지 않는 사례도 보인다. 실제로 한글로 작성된 《독립신문》의 의리 개념을 살펴보다 보면 유교적 의리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시계에 빗대어 사람의 처세와 국가 간의 일을 평론하는 논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상전 둘을 섬길 수가 없으니, 만일 돈과 욕심을 상전으로 섬기면 옳은 의리를 상전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²⁷ 이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문구인데 원문에서는 ‘의리’ 대신 ‘하느님’이

25 《독립신문》 1898년 10월 13일. 〈부인 상쇼〉

26 《독립신문》 1898년 11월 28일. 〈부주 충의〉

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유교에서 배척한 ‘사학(邪學)’이었던 크리스티교에서 믿는 ‘하느님’의 자리에 ‘의리’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 기사에서 여러 번 의리 개념이 등장하는데,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 의리와 돈과 욕심이 대립하는 구도처럼 의리의 기능적 반의어로 세상 욕심이 배치된다. 의리를 상전으로 섬겨야 용맹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라는 표현은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는 절의(節義)를 연상시킨다. 이외에 독립협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리를 믿는 교회’라는 구절이 나온다.²⁸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의리 개념을 ‘믿음’이나 ‘신념’처럼 사용했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실제로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진술 중에는 천주교도와 함께 산동 연태를 갔다 온 김창실(金昌實)은 “추구하는 의리가 서로 합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돈 700냥을 받기로 하고 갔다[非敢義理相合爲捧錢七百兩而去]”라고 진술하고 있다.²⁹ 여기서 의리 개념 또한 유교적 의리가 아니라 천주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기독교와 연관된 의리 개념은 절의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구교나 예수교를 믿는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백성이 마음이 강하고 용맹이 있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리가 생긴다’라는 논설 기사가 있다.³⁰ 즉, 믿음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리는 분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절의와 유사하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기독교와 관련된 의리 개념에서 보이는 의미장의 구조 자체는 ‘뜻과 이치’라는 기본적인 의미부터 유교적인 ‘절의’와 ‘충’이나 ‘의’와 같은 보편적·추상적 이념의 실천 자체도 의미를 가지게 만든 성리학적 의리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믿음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가 전래되어 박해를 받을 때 천주교도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켰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에서 보인 천주교도의 ‘의리’가 ‘절의’와 유사했기 때문에 의리 개념의 의미장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추측된다.

4. 결론

의리 개념은 조선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었지만, 현대 한국사회에

27 《독립신문》 1898년 2월 8일. 〈사람이 시계를 살 때에 사람마다 기계 속을 몰은즉〉

28 《독립신문》 1898년 3월 29일. 〈인천 항 룡동 그리스도인 복정치씨가 서술〉

29 《추안급국안》 29권 377쪽; 서종태 역(2014). 《추안급국안》 86권, 168쪽.

30 《독립신문》 1897년 12월 23일. 〈대만에 외국 학문 잇는 이들은 야쇼교를 밋고 아니 밋고〉

서는 부정적이거나 회화화되어 통용된다. 이러한 의미 사이의 간극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리 개념 또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해 개항기 신문 매체에 나오는 의리 개념의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의리는 크게 개인 간의 사사로운 의리와 유교의 의리로 나뉜다. 이 두 의리는 정과 의리의 결합이라는 양식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개인의 의리는 “타인과의 인격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최선의 헌신을 다할 때 이를 의롭다고 여기는 습속”인 반면, 유교의 의리는 “관계에 따라 주어진 ‘명분(名分)’에 맞게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후 유교의 전개 과정에 따라 외면적으로 확대되고 내면적으로 심화되면서 의리 개념은 더욱 확장되고 복잡해졌다.

19세기 말 시점에서는 유교적 의리 개념이 확장되고 변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정치화’이다. 조선 후기의 정치전개에서 충역시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통합하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정치의로’가 세워졌다. 또한 유일한 가치체계였던 의리 개념은 개항 이후 ‘신학문’과 대등한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상대화 경향을 보인다.

의리 개념은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자연물이나 이념,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렇기에 개항기에 등장한 새로운 관계에도 이러한 의리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먼저 ‘충군애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충애하는 의리’라는 표현은 군주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의리가 점차 구별되는 과정에서 군주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의리로 확장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춘추대이에 입각하여 의리를 확장하여 근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국제관계 인식의 근거가 되는 《만국공법》이 자연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도리와 같은 보편원리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장과 변용 이외에 개념의 의미장 내에서 유교적 지향이 사라진 의리 개념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서는 개화를 정당화하면서 의리 개념을 끌어왔는데, 여기서 의리는 유교적인 도의라기보다는 당위로써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보편적인 도의 개념에 가까웠다. 이외에 유교적 의리 개념과 다른 맥락으로 구성된 의리 개념이 나온다. ‘충애하는 의리’도 이와 유사하지만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에서 하느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해 의리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복합적인 의리 개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지만, 의리 개념의 의미장 내에서 그 지향이 더 이상 유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시기부터 의리 개념이 탈유교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상을 통해 19세기 말의 의리 개념이 확장·변용되거나 의미장 내에서 탈유교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 시대의 의리 개념이 현대의 의리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연구이다. 이러한 한계는 의리 개념의 의미장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2003).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 강상규(2013). *조선정치사의 발견 - 조선의 정치지형과 문명전환의 위기*, 창비.
- 곽금선(2018). “1898년 독립협회의 정치기획과 ‘충군애국(忠君愛國)’”, *역사와 현실* 107, 한국역사연구회, 375-408.
- 김낙진(2004). *의리의 윤리와 한국의 유교문화*, 집문당.
- 김학이(2009).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128-175.
- 서종태 역(2014). *추안금국안* 86권, 흐름.
- 윤철호(1995). “비범한 양심을 가진 평범한 청년 이지문 중위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의리”, *사회평론* 95(3), 사회평론사, 38-43.
- 이승환(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재열(2000). “의리인가 계약인가”, 석현호, 유석춘 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161-190.
- 정진석(2003). “해제 - 漢城旬報·漢城周報와 開化思想”, *한성순보·한성주보*, 동방미디어.
- 채백(2006). *독립신문 연구*, 한나래.
- 최상진, 김기범(2011). *문화심리학 -현대 한국인의 심리분석*, 지식산업사.
- 최성환(2009).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황소연(2009). “일본근세초기문학과 ‘義理’의식의 행방”, *일본문화연구* 29, 동아시아일본학회, 249-271.

【국문초록】

의리 개념은 조선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었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부정적이거나 희화화되어 통용된다. 이러한 의미 사이의 간극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리 개념 또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해 개항기 신문 매체에 나오는 의리 개념의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이를 통해 먼저 19세기 말에 유교적 의리 개념이 확장되고 변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선후기의 정치적 사건으로 충역시비가 일어나자 이를 봉합하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정치 의리’가 세워지면서 일종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의 유일한 가치체계를 대표하는 의리 개념이 서구의 ‘신학문’과 비교되는 ‘상대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군주에 대한 충성을 확장시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지향하거나,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의리 개념을 근대국제관계에 적용시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의리 개념의 의미장 내에서 유교적 지향이 사라진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리나 정의처럼 보편적인 가치를 끌어오고 있었다.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유교적 의리 개념과 다른 맥락으로 재구성된 의리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리 개념 분석을 통해 19세기 말 의리 개념의 의미장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리라는 언표는 성리학을 대표하는 핵심 가치였지만, 개항기에는 더 이상 유교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개념사, 의미장, 탈유교화,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ABSTRACT】

The Concept of “Uiri (義理)” at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 through Newspaper Media during the Open Port Period

Mun Gyeong-Deuk (Jeonju University)

The concept of “Uiri (義理)” was a key concept in Neo-Confucianism, which was the ruling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but it is used in modern Korean society negatively or as comedy. The gap between these meanings shows that the concept of Uiri has also changed in the process of modern transition. This paper applied conceptual history methodology to analyze the concept of Uiri in the newspaper media during the open port period.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e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Confucian concept

of Uiri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other words, a kind of “politicalization” occurred when a political dispute arose over the political incident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 “political doctrine” was established to seal it and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In addition, the concept of Uiri representing the only value system of Joseon was compared to the “new studies” of the West, and the “relative” tendency was also confirmed. Furthermore, the concept of Uiri expanded to include loyalty to the monarch and even to the nation, and extended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 (春秋大義)” to apply it to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we were able to identify cases in which Confucian values disappeared within the semantic field of the concept of Uiri. It was bringing about universal values, such as rights and justice, to justify enlightenment. In articles related to Christianity, the concept of Uiri, which was reconstructed in a different context from the concept of Confucian Uiri, could be identified.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semantic field of the concept of Uiri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as changing in its forms. In particular, the declaration of Uiri was a key value representing Neo-Confucianism,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o longer Confucian during the Open Port Period.

Keywords : conceptual history, semantic field, de-Confucianization, Hansung Sunbo, Hansung Jubo, The Independent News(1896)

이 논문은 2020년 12월 10일에 접수 완료되어 2020년 12월 2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1년 1월 1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